

제6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제남대학교	성명	이훈영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11월 1일
----	-------	----	-----	----	---	------	--------------

서

같은

복

경

에

가

기

를

약

속

했

다

그

날

제

남

기

차

역

에

서

엄

마

를

봤

을

때

나는

깜

짝

놀

랐

다

엄

마

가

각

있

던

머

리

가

잘

라

서

알

아

보

지

못

할

뻔

했

다

옷

도

이

전

에

입

던

못

이

아

니

었

다

며

칠

전

에

버

가

엄

마

한

테

새

옷

을

사

서

입

으

시

라

고

했

기

때

문

에

새

옷

을

입

고

오

신

다

고

생

각

했

다

‘

새

옷

을

샀

비

요

!’

‘

아

니

,

너

의

숙

모

의

옷

이

야

’

‘

무

리

라고

요

?

새

옷

을

사

라

고

했

잖

아

요

’

‘

시

장

에

가

서

보

니

마

음

에

드

는

것

이

없

어

.

이

옷

도

편

찮

아

보

이

지

’

제

남

기

차

역

에

서

부

모

님

을

만

났

을

대

반

가

무

것

이

라

는

기

대

는

엄

마

의

남

자

가

늘

이

잡

은

머

리

와

속

모

옷

을

입

은

어

색

향

때

문

에

조

금

도

기

뻔

지

않

았

다

또

엄

마

는

아

주

큰

가

방

을

매

고

있

었

다

.

가

방

안

에

오

이

도

있

고

,

사

과

도

있

고

,

뻔

도

있

고

.

과

자

도

있

었

다

.

가

강

생

각

지

도

못

한

것

은

단

오

절

에

먹

는

차

일

에

.

당

가

생

는

계

란

이

다

.

나

는

차

앞

에

답

가

생

는

계

란

을

좋

아

하

기

만

기

작

에

서

계

란

을

먹

는

다

는

것이

중

창

피

하

다

고

생

각

했

다

제6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제남대학교	성명	이훈영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11월 1일
----	-------	----	-----	----	---	------	--------------

‘아니, 지금 단오절도 아닌데 왜 계

란을 가져왔어?’

‘단오절이 되면 너는 학교에 있어서

차면에 당가 삼는 제란을 먹지 못 하

잖아.’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기가 막혔다.

기차를 5시간 타고 북경에 도착했다.

북경의 날씨가 제남보다 훨씬 더워서 아

이스크림을 사러 가게에 갔다. 엄마는

‘이거 얼마예요’라는 말을 머리

하고 나서 가랑 싹것을 골랐다.

또 랑피하다는 것을 노꼈다.

‘북경에 오면 당연히 북경을 구경 해

야지’하는 생각에 이제 나는 부모님이

랑 천만문과 자금성에 갔다.

나와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좀 빨라서

엄마는 따라오지 못했다. 걸다가 엄마는

발이 아프다고 했다. 즐겁던 기분이 그

순간에 싹 사라졌다. 계속 구경하고 싶

은 생각도 없어졌다. 지하철도 못 타고

걸도 빨리 못 걷고 헤어스타일도 원래

보다 대머싹 싹늑이 보이는 엄마가

십이지기 시각했다. 더 이상 창피 못 해

서 엄마한테 큰 소리로 외쳤다.

‘랑, 엄마는 왜 자꾸 사 략의 기분은

제6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제남대학교	성명	이홍열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11월 1일
----	-------	----	-----	----	---	------	--------------

나쁘게 만드이지?

엄마는 침묵에 빠졌다.

식제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도 아프고 엄마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저녁에 호텔에 돌아간 후, 같은 밤의 친구가 네가 찍은 사진을 보려고 해서 보여줬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도 나왔

다.

‘어버, 이분이 풍명씨의 엄마예요? 정말 잘 보여 보이네요! 진짜 예뻐요!’

옛날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다. 그때는 엄마의 머리가 정말 길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다.

아음이 갑자기 떨어질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했다.

있고 있었었다.

이전에는 엄마도 아주 젊고 예뻐 여자라는 것을 내가 진짜 잊고 있었다.

나 때문에 더 늙어진 것 같았다.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택 감에 빠졌다.

시간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은 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6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제남대학교	성명	이흥렬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11월 1일
----	-------	----	-----	----	---	------	--------------

방문을 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
 다.
 ‘엄마, 나 호텔에 도착했어요. 걱정하
 지 마세요.’
 ‘엄마, 밤이 지공도 아파요? 꼭 쉬체
 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잠 못 했어요. 엄
 마에게 화를 내서 정말 못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또 잤은 침묵에 빠졌다.
 ‘무슨 말이야? 나는 괜찮아...’
 ‘엄마도 너를 사랑해...’
 엄마는 행복해 하셨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님의
 자식사랑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딱 말 한마디 이면
 부모님으로 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수
 있다. 바로 ‘엄마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이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하지만 자식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심히 공부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빚은 갚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제6회 중국 성관 한글 백일장

학교	제1농대 학교	성명	이홍명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11월 1일
----	---------	----	-----	----	---	------	--------------

나	는	눈	물	은	흘	리	면	서	이	글	은	쓴	다
잘	못	쓴	것	이	적	지	않	겠	지	만	내	가	진
심	으	로	정	성	것	쓴	작	품	이	다	어	면	대
글	도	말	이	다	영	하	에	게	써	드	린	이	글
도	빛	을	간	은	수	있	는	것	이	되	기	를	
바	란	다											

100

200

300

400

500